

## 歲月 속에 씨를 뿌리며

金 秉 喆  
(中央大 文理大 學長)

“세월 속에 씨를 뿌리며 남이 하지 않는 일에 10년간 노력하던 무슨 일이든지 성공 못할 것이 없다.”

石宙明(1908~1951)

편집자가 나에게 준 제목 “나의 學問과 人生”은 나에게서 좀 지나친 제목일 뿐만이 아니라, 쓰기에 아주 거북한 건방진 제목이기도 하지만 나도 평생이 대학 교수라, 대학 교수란 그 직업이 학문을 하는 사람이고 보니 그 업적이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 망정 나의 생애도 학문적 편력이라고는 할 수 있겠다.

나로서는 교수의 기능을 두 가지로 생각한다. 하나는 행정가로서의 교수—즉 학장이나 총장이니 하는 보직을 맡음으로써 학교 운영에 공헌하는 경우, 또 하나는 교수의 본분을 학문 연구에다 두고서 오직 학문 연구에만 몰두하여 탁월한 업적을 남기는 경우. 이 후자의 경우 그가 남기는 저술을 나는 3등분한다. A급 저작, B급 저작, C급 저작으로. C급 저작은 대부분의 교수들이 저술하는 대학 교재류와 隨想錄 등을 말한다. B급 저작은 C급 저작보다는 약간 차원이 높은 저작을 가리키고, A급 저작은 독창성이 있고, 오랜 세월 걸려서 刻齒 끝에 남이 하지 않은 분야를 개척하여 學界에 크

게 공헌한 저작을 가리킨다.

편집자가 無名인 나에게 이러한 엄청난 제목으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知的 遍歷史를 써 달라고 청탁해 온 때에는 과거 20년을 바쳐서 완성한 「西洋文學移入史研究」(全 4 卷)에 대한 정보를 알고서 청탁한 것이리라 짐작하여, 그 책임담이 조금이라도 後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쓰기 거북스러운 청탁에 응하여 지면을 더럽혀 보려는 것이다.

내가 대학의 강단에 서기는 1953년 봄, 全北戰時聯合大學에서 美國文學史와 美國文學講讀을 담당했을 때부터이다. 그때 내 나이 32세였을 것이다.

내가 그 후 젊은 英文學 교수로서 한 시간 가르치려면 3시간을 공부해야 할 정도였으니 그때의 내 실력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으리라.

우연히 서게 된 강단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내 생애를 결정해 줄 중대한 인생의 한 토막이고 보니 나는 교수란 직업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교수로서 성공하는 길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교수의 본분이 학문 연구에 있다고 느꼈다. 그렇다면 학문 연구에 몰두하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혔을 그때 헤성처럼 내 머리 속에서 번득이는 閃光이 있었다. 내 나이 16세 때 石宙明선생님한테서 들은 “세월 속에 씨를 뿌리며 남이 하지 않는 일

에 10년간 노력하면 무슨 일이든지 성공 못할 것이 없다”는 교훈이다. 石선생님은 당시 松都高普 生物교사로서 우리들에게 博物(이제의 生物)을 가르쳐 주시고 있었는데, 나이는 30세 정도였고, 그때 벌써 세계적인 학자였다는데 우리들 조무래기들이 당시에는 알 까닭이 없다. 이 사실은 내가 젊이 들어 대학 교수가 된 후에 학문을 해보리라고 학문에 눈이 났을 때 石선생님이 나비 연구가로서 세계적인 학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石선생님을 더욱 존경하고, 石선생님의 교훈을 따르리라고 결심하게 되어 그 교훈이 불현듯이 20년 후에 내 머리 속에서 해성처럼 번득인 것이다. 말하자면 선생님의 교훈은 나에게 큰 꿈이었던 것이다.

나에게까지 뻗어 내려온 이 큰 꿈의 起源은 파브르에게서 시작된다.

어느 날 石선생님은 생물시간에 파브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 주시며 그가 10여 년을 바쳐서 한국 나비 연구에 몰두한 데에는 파브르의 영향이 가장 컸다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들려 주셨다. 말하자면 파브르가 프랑스에서 세월 속에 뿌려 놓은 씨는 한국이라는 수만리 異域의 땅에다 100여 년이 지난 후 石宙明이라는 젊은 이에 게 꿈을 심어 주어 石宙明 나뭇대로의 열매를 맺게 해 준 것이다. 마치 미국의 헨리 도로우의 「市民不服從論」이라는 한 편의 논문이 100년 후에 간디를 만들어 낸 것처럼.

나는 여기서 좀 내 얘기가 탈선되는 한이 있더라도 ‘꿈의 連結性’이라고 할까 그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다.

여러분은 미국의 19세기의 대사상가 에머슨을 다 잘 알 것이다. 내가 대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전공이 미국 소설이기 때문에 자연히 전공에서 얘기하게 되는데, 에머슨이 1837년에 하바드대학의 엘리프 그룹인 피카파 배타 학회에서 “미국의 학자”란 제목으로 한 강연은 후세의 미국인들에게 큰 꿈을 심어 주었으며, 그 골자는 계층 여하를 가릴 것 없이 자기 재능에 따라 노력만 하면 자기의 길에서 성공할 수 있으니 자기를 믿고 노력하라고 갈파한 것이다. 이 사상을 祖述한 책이 그의 「代表的人物論」(1850)인데, 여기서도 그의 근본사상은 조금도 다름이 없다. 에

머슨과 쌍벽을 이루는 영국의 대사상가 카알라일은 영웅은 시대가 만든다고 했으나 에머슨은 偉人(영웅)은 시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에 의하여, 他律的이 아니라 自律的으로 즉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갈파한 것이다. 그는 셰익스피어를 세계의 모든 시인의 대표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셰익스피어가 자기의 천분인 詩才를 자기의 노력으로 개발한 데 있다는 것이다. 세계 시인 중 가장 노력한 시인이 셰익스피어라는 것이다. 에머슨의 이러한 自己信賴論은 ‘미국의 꿈’으로서 후세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도로우, 홀즈, 휘트먼, 칼빌, 마야크 트웨인, 헤밍웨이, 포크너 등의 출현은 이 꿈의 소산이다. 이 꿈은 미국내에만 있지 않았다. 일본, 인도, 유럽에까지 파급되었다.

파브르는 프랑스에서 미국에서 에머슨이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한 것이며, 파브르가 뿌린 꿈의 씨는 한국의 石宙明을 낳았다.

다시 石선생님의 이야기로 되돌아가자. 대학 교수도 아니고, 南프랑스의 小邑 썽 테옹의 貧賤의 아들로 태어난 파브르는 로데중학교를 다녔을 뿐 국민학교, 중학교의 생물선생 노릇을 하며 30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昆蟲記」(全10卷, 1879~1910)를 저술했다. 이 저작의 업적으로 파브르는 1887년에 프랑스 아카데미 회원에 추대되었고, 1910년에 아카데미상이 수여되었다는 것이다.

그 상은 물론 프랑스 최고의 상이며, 상을 주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수상자인 파브르는 상을 타러 나오지 않았다. 그 이유인즉 자기가 상을 타러 가면 그 동안 아이들을 가르친 사람이 없겠기에 자기의 모든 명예를 포기하고는 언제나처럼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것이다.

더우기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자기의 수상에 관한 얘기를 그는 입 밖에 내지 않아 마을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안 당시의 프랑스 대통령 포앵카레는 파브르의 소행에 감격하여 손수 그 상을 들고 파브르의 鄉里까지 가서 그 상을 전했다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들려 주셨다.

이 얘기를 들은 지 5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얘기가 마치 어제 들은 것처럼 머리 한 구석에 꼭 박혀 있다. 石선생님은 대통령의 인격에도 머리가 숙여지지만 자기는 파브르를 더욱 존경한다고 하셨다.

파브르의 학생들에 대한 태도, 즉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자로서의 인격도 훌륭하지만 그 성실성은 인간으로서도 더 할 나위 없이 위대하다는 것이다.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길인가를, 즉 인생의 가치관을 인류에게 가르쳐 주었을 뿐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한 言行一致의 美德을 갖춘 인격자라는 것이다. 파브르의 연구 방법을 곤충형태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론도 독창적(다아윈이 극찬했다고도 말씀하셨다)이지만 벽촌에 있는 중학교의 일개 무명교사이면서도 남이 하지 않는 곤충형태학 연구에 30년이란 긴 세월을 바쳐 정진한 그 노력에 감탄하기 때문에 石선생님은 파브르를 더욱 존경한다는 것이었다. 파브르처럼 남이 하지 않는 일에 죽어라고 10년 이상 노력하면 무슨 일이 고간에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이었다. 그도 조선인 중학교의 일개 조선인 선생에 지나지 않지만 조선 나비를 죽어라고 10년 이상 연구했기 때문에 이제는 파브르가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듯이 자기도 조선 나비에 관한 한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말은 바꿔 하면 파브르가 刻蝨의 노력에 의하여 쌓아 올린 업적은 세계의 모든 불우한 뜻 있는 소년들에게 꿈을 심어 주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에머슨이 이룩한 일과도 흡사하다.

石선생님이 파브르를 예로 들어 우리들에게 얘기하신 데에는 자기와의 同質性을 염두에 두신 것이 분명하다. 두 사람이 다같이 보잘것없는 중학교 교사였다는 同質性을.

여기서 내가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은 파브르가 심어 놓은 꿈을 石선생님이 가꾸어 놓은 것을 다시 내가 이어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니라 오직 현재라는 것, 다시 말하면 과거의 인생이(학벌도 마찬가지) 제 아무리 화려한 것이라 할지라도 현재까지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그 과거는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이다. 또 미래에 꿈만 심어 놓고

노력하지 않는 태도도 아무 소용도 없다.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걸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리 좋은 학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토대로 하여 보다 더 높은 배를 지향한 刻蝨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재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노력의 방향은 남이 하지 않는 일에 경주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일시적인 노력이 아니라 적어도 죽어라고 10년 이상은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偉人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모두가 남이 하지 않는 일을 10년 아니 한평생 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파브르는 물론이고, 에수가 그렇고, 간디가 그렇고, 에디슨이 그렇고, 링컨, 카네기, 시바이찌, 갈릴레오, 고호 등 모두가 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요약해서 말하던 나의 인생관의 기초는 七類八起의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파브르가 심어 놓은 꿈이 石선생님을 통하여 나에게 點火된 것이다.

이러한 결심하에 나는 나의 40代의 10년을 바쳐서 해밍웨이文學의 연구에 몰두하여 「해밍웨이文學의 研究」(乙酉文化社, 국판, 533면, 1968), 「해밍웨이傳記」(乙酉文化社, 국판, 383면, 1970), 「해밍웨이全集 번역」(전 5권, 徽文出版社, 1966)을 완성한 것이다.

그러나 石선생님의 교훈에 따라 執念 끝에 10년이 걸려서 완성해 놓은 나의 업적을 대하고 나는 조금도 기쁘지가 않았다. 기쁨보다는 업적에 대하여 懷疑의인 생각이 앞섰다. 내 연구가 얼마나 독창적인 데가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오래 남을 것이고, 英美의 영문학계에 얼마만한 공헌을 할 것이냐에 대한 나의 처절한 懷疑感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학문에 대한 집념을 꺾을 수는 없었다. 피에테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성공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거기 이르기까지의 途程에 우리가 쏟는 執念과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맛보는 삶의 충실감과 긴박감이 아닐까? 이 충실감과 긴박감은 誠實性으로서 우리의 생명에 질서를 주는 것이 아닐까? 生命秩序로서의 인간의 성실성,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보람을 얻고서 궁극의 세계인 성공을 향하

여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처럼 나는 價值 實現을 결과에서보다는 결과를 지향한 현재의 一瞬一瞬에서 충실감과 긴박감을 감득하며 살아 가려는 태도에서 보려는 인생관을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또 한번 나는 실망도 낙관도 할 것 없이 새로운 일에 착수하기로 결심했으며, 남이 하지 않은 일, 즉 西洋文學移入史研究에 내 50대 이후의 인생을 바쳐서 완성하리라는 거창한 일에 착수한 것이다.

이 일은 전연 황무지여서 자료를 구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어려웠다.

자료 수집은 제 1차, 제 2차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인데, 제 1차는 1970~74년, 제 2차는 1976~79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 자료를 정리한 것이 「西洋文學移入史研究 제 3권 西洋文學翻譯論著年表」(乙酉文化社, 1978, 국판, 222년)이다. 이 책의 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西洋文學移入史研究 제 1권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乙酉文化社, 1976, 국판, 1045년)와 「동 제 2권 韓國近代西洋文學移入史研究(上)」(1980, 국판, 870년)와 「동 제 4권 韓國近代西洋文學移入史研究(下)」(1983, 국판, 834년)이다.

자료 수집부터 출간까지 꼬박 만 13년이 걸린 셈이다. 50세에 시작한 것이 그 동안에 회갑이 지났고, 62세에 가서 완성되었다. 「韓國近代西洋文學移入史研究(下)」의 「自序」에다 이 때의 감회를 나는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내가 西洋文學移入史研究에 뜻을 두고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 것은 내 나이 쉰이 되는 1970년이었다. 그 후 13년이란 세월이 덧없이 흘러 이제 나는 初老를 맞은 耳順의 문턱에 올라 책수르 해서 4권으로 된 이 「西洋文學移入史研究」의 完結을 보게 되어 이제 이 마지막 自序를 쓰고 있노라니 정말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 이 13년 동안 나는 하루도 이 책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는 한사코 이 원고가 든 가방을 머리맡에다 놓고 잤으며, 만일 집에 불이 나면 다른 것은 그만 두더라도 원고가 든 가방만큼은 들고 나가야 한다고 집안식구들에게

단단히 당부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나의 半生을 이 책 속에다 불살라 버린 셈이다. 이제 젊음은 나에게서 영원히 가버렸다. 그러나 가버린 그 젊음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보람으로 보낸 나의 젊음이기 때문이다. 나의 젊음이 간직된 이 4권의 책을 대할 때 그 외로웠던 긴 세월에 대하여 한가닥의 위로를 느낀다…….”

이상의 고백은 1970년대를 살아 온 한 한국 학도의 진정을 토로한 總論이다. 사실 나는 이 10년 동안만큼 내 일생을 통하여 삶의 충실감을 만끽한 적도 없었다. 그 동안 나는 파브르의 인생관에서 얼마 남지 않은 나의 餘生에 꽃을 피우려고 세월 속에 매일 같이 씨를 뿌렸던 것이다.

이 4권의 책의 완결을 위하여 나는 일년 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에 한 시간쯤 운동을 했고, 일요일에는 마치 성직자처럼 등산을 했으며, 저녁의 산책시에는 聖堂에 들러 하루의 건강을 허용해 주어 이 일을 무사히 하게 해 주신 하나님의 고마움에 기도를 올렸던 것이다. 10년간의 인생을 그 책 완성하기에 바쳤으며, 그 동안 나는 모든 회합 참가의 거절, 모든 비학문적인 보직의 거절, 잡문 쓰기의 거절, 저널리즘(라디오, 텔레비전, 공개강연)과의 영합 거절—그리고는 파브르가 그랬고, 石선생님이 그랬고, 해명웨이가 그랬고, 도르무가 그랬던 것처럼 고독 속에서 이 길을 향한 執念의 불꽃에 봉화를 들었던 것이다.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가 나온 것은 1975년 3월 30일이며, 이 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팔리지 않은 책의 하나였을 것이다. 팔리지 않을 것은 자오한 바였지만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책에 대한 世評이었다. 그러나 결과부터 말하자면 자고 나니 하룻밤 사이에 유명해졌더라는 바 이런 世評에 비할 만한 것이었다. 나는 짹짹 놀랐다. 서울의 모든 日刊紙에 일제히 이 책의 출판을 알리는 기사가 내 사진을 곁들여 5단 기사로 보도되었다. 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新銳 국문학자들의 본격적인 好評과 惡評이 뒤섞인 世評이 日刊紙와 잡지에 발표되었다.

더우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나는 더

욱 놀랐으며 기쁘기 한이 없었다. 讀書新聞社가 “學界人士 118명이 選定한 광복 30년의 名著·力著”란 1975년 8월 30일자 양면에 걸친 기사에 그 30종 가운데 내 책이 14번째로 끼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나는 그지없이 놀랐으며 황홀할 정도로 기뻐했다. 내 業績이 정당하게 평가를 받은 데 狂喜했다.

드디어 神은 영광의 일개관을 나에게 안겨다 줘 1976년도 제17회 3·1文化賞 學術本賞과 1976년도 韓國日報著作賞을 타게 되었다. 나는 이러한 상을 탔다는 그것보다도 나의 오랜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을 받았다는 데 더 한층 기뻐한 것이다.

또 하나 이 책은 文公部가 선정한 '75년도 추천도서 29종의 하나로 선정되었다는 것도 바깥의 일이었다. 나는 내 업적이 오래 가기를 염원한다. 그것만이 내가 바라는 전부다. 이 책이 발간된 지 9년째인 1983년에 韓國古書同好會가 선정한 「한국 신식 출판 100년 100선 도서전시회」라는 책자에 이 책이 98번째로 끼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서 나는 또한 기뻐했다. 10년이면 태산도 변한다는데 10년째인 1985년에도 이 책의 가치가 인정을 받고 있다는 證左로서 「新東亞」 1985년 1월호 특별부록으로 나온 「현대 한국의 名著 100권」(1945년~1984년)에도 끼어 있다는 것도 나를 狂喜케 했다.

스스로 돕는 자 하늘이 도우신다는 萬古의 진리를 立證해 주듯 神은 그 후에도 계속 내 노력에 보답해 주셨다. 나머지 책들에 대해서도 서울市文化賞(人文科學分野)(1980년), 大韓民國學術院賞(1983)이 수여되었다.

學術院會員도 아닌 나에게 學術院賞이 수여되었다는 것에 나는 더욱 기쁨을 느낀다. 프랑스 아카데미賞에 견줄 만한 賞이라는 데 파브르를 생각하며 그 同質的 기쁨을 느끼고, 神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 證左이며, 내가 걸어 온 인생의 길이 옳았다는 데 다시 한번 기쁨을 느낀다. 파브르가 심어 놓은 꿈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절감했고, 石선생님의 교훈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이제 새삼스럽게 절감했다.

내 나이도 1년 반이던 대학의 강단을 떠날 나이

가 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저 파브르와 石선생님을 본받아서 우직하게 내 모든 인생을 「西洋文學移入史研究」(全 4 卷)의 집필에 바쳤을 뿐이다. 또한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대학 교수 생활 40년 동안에 학장·처장 한번 해 보지도 못했고, 신문에 이름 석자가 크게 보도된 적도 없는 전연 無名之士다. 이 글도 쓸까 말까 무척 망설이다가 나 같은 불우한 젊은이에게 조금이라도 꿈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될까 해서 붓을 든 것이다. 남처럼 외국에 가서 박사 학위를 따 온 사람도 못 되고, 日帝 때 국내의 시시한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中國으로 건너가 영문학 석사 하나를 따다는 것이 나의 초라한 경력이다. 파브르의 그것을 많이 넘어서지 못한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파브르와 石선생님을 섬기고 스스로 돕는 자 하늘이 도우신다는 哲理를 굳게 믿고서 그것을 실천한 결과 上記한 업적을 내어 學界의 말석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이 나의 現狀이다.

끝으로 한 가지 力說하고 싶은 것은 학벌이 나처럼 시원치 못한 사람도 스스로 돕는 자 하늘이 도우신다는 哲理를 굳게 믿고서 파브르가 심어 놓은 꿈을 따르던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파브르나 石선생님의 實例에서 거울삼아 노력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 마지 않는다. 요즘의 우리 영문학계를 例로 보전대 영미에 가서 영문학박사 학위를 따 온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을 보아 장래의 우리 영문학계의 밝은 전망을 볼 수 있으나 그분들의 귀국 후의 활동을 보면 별로 오래 갈 수 있는 업적을 남기는 예는 극히 드물고, 감투쓰는 일과 공개강연이다 세미나다 하는 것에 참여하며 시간을 낭비(내가 보기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하고 있는 것 같다. 기초가 그만큼 튼튼하니 그 기초 위에서 큰 업적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분들도 벌써 나이가 50을 넘은 분들도 많고 귀국 후 대학에 돌아와 줄곧 감투쓰기에 바쁘니 학문은 포기한 것일까?

鳥山선생이 말씀하신 바 진리는 언젠가는 그 빛을 발하게 되는 법이라고 絶叫하신 그 교훈이 나에게도 역시 진리라는 것을 내 체험을 통해서 나는 확신한다. 나처럼 學界나 저널리즘에 전연

알려지지 않은 無名之士도 그 업적을 알아 주는 양심이 우리나라 한구석에는 그래도 있다는 것을 보고서 무한한 기쁨을 느꼈다.

그 한 예로서 아까 이야기한 「新東亞」 1985년 1월호 별책부록으로 나온 「현대 한국의名著 100 권」에 내 책인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는 끼어 있는데, 수십권의 수상록을 내어 베스트 셀러의 톱을 장식하는 그 책들이 여기 끼어 있지 않은 것은 어찌 된 셈일까? 또한 그 책을 쓴 저자들은 세상이 다 아는 有名之士인 것은 물론이고, 이 사실을 보고서 印稅라고는 별로 받아 보지도 못한 책(이 책을 내 준 것만도 고맙다)이 그래도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 세상은 살아 볼 만한 곳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졌다. 또한 용기를 얻었다.

학문에 뜻을 둔 젊은 후진들이여, 학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갈 수 있는 학문적 업적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우리가 칸트를 아는 것은 그의 학문적인 업적 때문이지 그가 학장을 했는지 총장을 했는지 그것 때문은 아닐 것이다. 이것을 굳게 믿고서 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문적 업적, 즉 오래 남을 수 있는 저서를 남기는 일만이라는 것은 깊이 명심해 주기 바란다. 이 글의 의도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인간의 眞價는 관 뚜껑을 달는 날에 결정되는 것이라고 한다. 죽는 날까지 노력해야 된다는 뜻

이다. 보잘것없는 책 몇 권 쓰고 감투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나는 눈도 나쁘고 해서 학문을 그만둘까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金斗鍾先生의 「韓國古印刷技術史」(1974)(이 책은 광복 30년의名著·力著 30 권 중 제 4위에 들어 있는 책이다)의 '自序'를 보다가 번쩍 정신이 들었다. 停年 후에 무엇을 할까 하다가 학문의 의욕을 버리지 못하여 착수한 것이 이 책이다라는 귀절을 읽고 큰 충격과 자극을 받았다. 선생의 쉬시지 않는 학문애의 집념은 나에게 큰 꿈을 심어 준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눈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평소에 꼭 이것 하나만은 더 해야겠다고 버트던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여 그 일을 2년째 하고 있는 중이다. 「韓國現代翻譯文學史研究」(1950~1985)가 그것이다. 그 자료 수집으로서 약 5만 항목의 자료를 얻었다. 앞으로 4~5년만 있으면 책을 낼 생각으로 매일매일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를 쓸 때와 조금도 다름 없이 건강을 위하여 새벽에 일어나 일년 내내 아침에 한 시간쯤 조깅을 결한 운동을 하고 있고, 일요일에는 관악산에 오른다. 이처럼 나의 모든 삶의 설계는 이 책을 쓰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나는 이 책의 완간 외에는 아무 욕심도 없다. 그리고 그 책의 수명이 오래 가기를 염원할 뿐이다.

\*